

제5차 사회교육 심포지움
시민의식과 사회교육

시민의식과 사회교육

이영덕/서울대 교수

시민사회의 특징과 사회교육의 역할

김동일/이화여대 교수

민주시민교육의 과제

황종건/한국사회교육협회 회장

시민의식함양과 지역사회학교운동

김신일/서울대 교수

시민의식과 교육환경개선

한준상/연세대 교수

시민의식과 사회교육

이 영 덕

(서울대 교수)

1. 머리말

이 글의 제목 「시민의식과 사회교육」 속에는 「시민」 「시민의식」 「사회교육」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다. 「시민」은 공동체로서의 현대 시민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을 뜻하는 말이다. 그것은 왕이나 전제 군주에게 순종하고 충성할 의무만이 강조되는 군주국가에서의 신민이나 백성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시민은 현대 민주국가에서 주권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국민 즉 민주시민을 지칭하는 말이다. 1762년에 펴낸 「사회계약론」에서 루소는 국민 주권설을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전체의 사회계약으로 성립하며 개별적인 의지의 집약이면서 동시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의지가 법질서 성립의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권은 어떤 특정 권력자의 전유물이 아니며 국민전체의 일반의지의 행사를 나타내게 된다. 국민 모두가 계약 당사자가 되고 따라서 주권은 그들에게 있으며 정부는 국민의 일반의지를 집행할 책임을 질 따름이다. 이와 같은 주권재민 사상은 계속되는 시민혁명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현대 대의정체체제를 성숙시켜 온 것이다.

「시민의식」이란 곧 위에 말한 민주적 시민사회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시민의 자아정체성(self identity)을 뜻하는 말이다. 나의 참여로 성립되는 공동체로서의 국가의 이상이 무엇이며, 극복되어야 할 문제들은 어떤 것이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복잡하고 힘든 문제들과 씨름하며 급격한 변동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국가 공동체 속에 나는 누구인가? 내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은 무

엇이며, 주권자인 나와 주권 집행을 위임받은 기관으로서의 정부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며, 또 실제로 어떤 것인가? 그리고 주권자로서의 나는 나의 역할을 책임 있게 감당하기 위해 어떠한 인격과 지식과 능력을 구비해야 하는가? 나는 과연 그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또 그 자질의 계속적인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자기교육의 기회를 찾고 있는가? 이외에도 관련된 많은 질문들이 열거될 수 있다. 시민의식이란 곧 이러한 일련의 질문들에 대한 교육받은 이의 대답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교육」이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을 지칭하는 말이다. 새삼스럽게 평생교육의 필요를 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동안 어떤 형태로든지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된다. 그것이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든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든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사람이 출생하여 죽을때까지 계속된다. 그리고 삶의 모든 장에서 교육은 진행된다. 교육을 전담하도록 위임받은 학교가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지만 더 많은 시간에 걸쳐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부분이 있다. 전자를 학교교육이라 하고 후자를 사회교육이라고 구분할 수 있다. 교육 형태로 보면 학교교육은 보다 형식적이고 조직적인데 비해서 사회교육은 덜 형식적이고 덜 조직적이다. 물론 이와같은 일반화에서 예외가 되는 사례는 많다. 학교교육이라고 해도 영국의 썸머힐같은 자유학교들에서는 형식이나 통제에서 거의 완전히 벗어난 형태의 교육을 하고 있다. 또 매우 조직적인 학교의 경우에도 과외활동 프로그램이 매우 자유롭고 고정된 형식을 벗어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본다. 한편 사회교육의 범주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기술훈련과정이나 교양교육프로그램의 경우 학교교육 이상으로 치밀한 조직과 통제가 따르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학교교육에 비하면 사회교육은 보다 비형식적인 성격을 띠게 되며 통제요인이 덜 있게 된다.

사회교육에 있어서 통제요인이 덜하다는 것과 관련하여 조금 더 생각을 전개해 보고 싶다. 학교교육의 경우에도 의도하지 않는 배움을 낳게 하는 숨은 교육적 세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교육의 장에도 그러한 숨은 교육적 세력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어떻게 하다보니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가르침과 배움만을 「교육」이라는 정의에 포함시키자는 약속이 전문가들 사이에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목적과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한다는 의도도 계

획도 없이 모르는 사이에 전개되는 상호작용에 결과되는 배움이 다른 어떤 형태의 의도적인 교육에서 얻어지는 배움보다도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결과를 낳게 한다는 사실이다.

이 무시 못할 숨은 교육적 세력을 외면한 채 논한다는 것은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다. 그래서 근자에는 「잠재적 교육과정」 혹은 「숨은 교육과정」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리하여 학교교육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노출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운영하는데 투입하는 노력과 자원만큼은 못되지만 적어도 연구수준에는 잠재적 교육과정 쪽에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이에 비해서 사회교육에서도 그 주요관심이 노출된 교육과정(이들테면 각종 직업훈련과정, 각 분야별 계속교육 프로그램, 주부교실, 노인대학 기타 각종 대중매체를 통한 생활 및 교양강좌 등)에 집중되어 있고, 사회의 문화풍토 가치지향 관습 인간관계의 성격 등에 의해 인간이 형성되어 나오는 숨은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조직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있다. 어쩌면 문화전체를 통한 인간형성을 연구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일은 교육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가 대부분일런지도 모른다. 교육을 노출된 교육과정 측면에만 제한시켜 생각하는 것으로 인간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미흡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육의 역기능마저 낳게 한다.

여기서 논의되는 「사회교육」 개념은 노출된 사회교육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전체문화요인들을 통해 작용하는 숨은 교육과정을 의도된 교육프로그램화하는 조직적인 노력까지도 포함되는 것임을 밝혀둔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모임에서의 우리의 관심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성숙한 민주적 시민의식을 그들의 인격 속에 내면화시키기 위해서 사회 속의 모든 교육적 세력(노출된 것과 숨겨진 것)을 조직화하여 그 효능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일에 집중되는 것이다.

2. 공동체로서의 시민사회의 성립

「시민」이라는 개념자체가 근대 시민사회의 성립과 함께 발전된 개념이기에 우리는 시민사회의 특성과 그 소망스러운 모습과의 관계 속에서 시민이 어떠한 야 하며 그 자질은 어떻게 교육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서양사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할 때, 시민사회 성립의 시기를 17세기 18세기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17세기에 영국에서는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의 두

단계를 거치면서 인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장치와 싸움으로가 아닌 설득과 타협의 기술로서의 정치적 전통이 수립됨으로써 의회민주주의체제의 근간이 잡혀갔다. 한편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은 아마도 시민혁명의 극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른바 시민계급이 주도한 이 혁명에서 봉건적 지배체제와 절대왕정이 타도됨으로써 시민사회 건설의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적 시민사회의 성립은 이미 먼 역사의 과거에 뿌려졌던 씨앗의 발아요 역사 속의 표출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오늘의 자유민주주의적 시민사회를 낳게 한 서양역사의 한 뿌리는 고대 희랍의 폴리스의 성립에서 찾을 수 있다. 폴리스는 공동체적 성격을 띤 소수국가들을 말한다. B.C.800년 경에게 바다 주변에 많은 소수국가들이 분립하고 있었다. 도리아인들이 남하해 오면서 밀려난 원주민들은 그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키기 쉬운 곳에 거주지를 마련해야 했다. 이 희랍주민들은 이민족에게 둘러싸인 새로운 거주지에서 그들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한데 뭉쳐서 하나의 협동체제를 만들어야 했다. 정복자로서 내려온 도리아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에 의해 피해 입은 원주민들의 공격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지켜야 했으므로 그들 스스로 강력한 군사 공동체를 이룩하여야 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스파르타는 9,000 가족이 결속하여 자위책으로 마련한 하나의 전사 공동체의 대표적인 보기라고 할 수 있다. 초기의 폴리스가 대개 왕정의 형태를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귀족정과 다름없는 것이었다. 집권군주는 전쟁에서는 전사들을 지휘하고 중요사항의 결정에 있어서는 전사들과 협의하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는 부유한 상공업자나 농민들에게도 군복무를 요청했고 따라서 폴리스 정치에서 이들의 발언권과 책임이 점차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들의 훈련에서는 철저한 협동정신과 단결력이 강조되었다. 개인적으로 뛰어난 용맹보다는 끝까지 자기 위치를 고수하는 인내심과 책임감이 높임을 받았다. 공동체 구성원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는 행위 속에서 진정한 자유의 실현을 인식한 시민들을 그들은 만들어 내고자 한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에의 헌신이 한 인격 속에 통합된 그러한 시민들에 의해서 폴리스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폴리스도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왕정이나 귀족정체제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했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공동체는 아니었다.

모든 사람을 위하고 모든 사람에 의한 공동체 성립의 기본이 되는 인간존엄과 평등과 자유와 화합의 정신은 또 하나의 서양역사의 뿌리인 고대 히브리인들의 신앙적 이상과 초대 기독교회에서 찾을 수 있다. 히브리인들이 믿은 야훼

의 신은 절대적인 진리와 사랑과 공의로 표상된다. 인간은 신의 지리와 사랑과 공의 안에서 삶으로서만이 참 평화와 자유와 번영을 얻게된다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파란 많은 역사에서 얻은 경험적인 신앙이다. 야훼의 신은 그의 백성들의 온전한 순종과 충성을 요구한다.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야훼의 명령은 사람들이 공의를 행하는 일, 이웃사람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일,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로 집약될 수 있다.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잘됨을 위해 정의롭게 살아감을 뜻한다. 인간창조에서 야훼는 사람이 홀로 살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사회를 형성하여 살도록 만들었다. 남자인 아담을 창조한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겨 여자인 하와를 또 만들고 둘이 「한몸」을 이룰지니라고 명령했다. 첫 인간가족에게 한 명령이다. 『하나』가 되어 살아야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명령을 내린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정의로움에 따라 한 가정, 그리고 한 민족이, 더 나아가서 인류가 하나가 되어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속에 화평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히브리인의 역사는 그들이 야훼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 때에는 하나님의 축복속에 번영했고, 불순종하여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 질서가 깨지면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따르는 그러한 일들의 반복으로 되어 있다. 그들이 종교적으로, 따라서 도덕적으로 타락할 때마다 야훼의 신이 세워보낸 예언자들이 나와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꾸짖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다. 회개란 곧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뜻한다. 약한자 가난한 자들에게 포악하게 하던 행위에서 그들에게 인애를 베푸는 삶으로 변화됨을 뜻했다. 자기욕심의 노예가 되어 있던 상태에서 공동체의 잘됨을 위해 헌신하는 인격으로 변화됨을 뜻했다. 예수를 맞이할 준비로써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부르짖은 세례 요한이란 사람은 회개의 증표로서 옷 두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하고, 세리는 정한 세 외에는 능징(勒徵)치 말고, 군병들은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고 받는 요를 죽한 줄로 아는 것이라고 했다.

오랜 세월이 걸친 역사를 통해서 반복된 경험적 학습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들의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화해에 실패하고 만다. 인간 속의 자기중심적 욕심이 그의 신이 되어버리고, 그 충족을 위한 모든 불법과 불의로 인해서 공동체도 자신도 망하게 되는 운명을 인류가 선택한 상황에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빌어 세상에 와서 인간들의 죄의 징벌을 자신이 받고 십자가상의

재물이 되어 인간 해방의 길을 터놓게 되었다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이다. 예수는 모든 인간은 신의 창조물로 존중하고, 모든 인간이 죄악을 떠나 하나님과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전환될 것을 위해 죽기까지 수고했다. 그이가 행한 교육 활동은 실로 방대한 것이지만, 이를 집약하면 첫째,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라는 것과 둘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라는 것이었다. 즉 절대적인 진리와 사랑과 정의에 따라 살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을 예수는 말과 기적들과 실천을 통해서 가르쳤다. 그의 가르침은 초대교회에서 일부실천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그때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사도행전 2:42-27)

모든 개인이 존중되고 참여하는 공동체의 개념을 신약성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은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데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이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시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 하니…」(고린도 전서 12:12-6) 이것은 공동체의 구조와 역동을 설명하는 완전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약술한 희랍의 폴리스적 전통과 기독교의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됨」의 신앙이 뿌리가 되어 1215년에 영국에서는 대헌장이 쓰여질 수 있게 되었고, 문예부흥과 종교개혁을 거쳐 시민의식은 더욱 고조되고 시민혁명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민주사회의 성립을 시민혁명 근대 시민사회의 성립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하다보니 서양역사 중심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나 시민사회가 서구의 독점물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인간존중이나 공동선의 추구 등 민주적 요소는 우리 역사에서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우리의 전통사회에서도 「두레」라고 하여 농사를 위하여 같은 지역에 사는 비슷한 연령의 남자들이 한데 모여 대등한 입장에서 일하고 함께 즐기는 전통적 풍습이 있어 왔다. 신라의 「화백」 제도는 자주 인용되는 민주적 요소의 한 예이다. 유교의 예양(禮讓)관념은 인격평등 사상과 관용정신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또 일찌기 공자의 「나에게 행하여지기를 원치않는 행위를 남에게 하지말라」는 교훈도 우리 문화속에 깊이 박혀 내려왔다.

이런 것을 놓고 생각해 볼 때 공익을 위한 협동정신이나, 평등사상이나, 인간의 기본권리에 대한 존중들이 제도적으로 혹은 사회체제로 구현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 지역에 따라 앞서고 뒤지는 차이는 있다고 해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실험적으로 주어진 보편적 지향이며, 따라서 그 지향은 언젠가는 인류 역사 속에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제 이와 같은 인간의 기본지향이 역사의 표면에 부상되어 각 민족 집단마다 그리고 각 진영마다 보다 온전한 공동체로서의 시민사회 구현과 그 성숙을 위해 많은 진통들을 겪고 있는 것이다. 개인 속에는 자기 이익에의 집착과 공동체의 잘됨을 위하는 마음사이의 싸움이 있다. 국가적으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체제관리의 필요와 모든 사람에게 보다 많은 자유와 참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요청사이에 항상 갈등과 긴장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개혁세력과 보수세력간의 싸움은 그치지 않고 때로는 심각한 위기상황이 조성되기도 한다.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계약당사자로서의 주인이 되는 성숙한 시민사회 구현을 향한 역사의 진전 속에서 지금 우리 나라는 민주화의 열기로 매우 뜨거워져 있다. 우리도 역사의 흐름을 따라 민주적 시민사회의 실현을 위해 결단하고

나선 셈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이 과업을 성취해야 한다. 역사는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

3. 교육받은 시민과 교육개념변화의 당위성

우리는 요즘 어디에 가나 민주화의 외침을 듣는다. 민주화의 소원이 너무 커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떤 학생들은 남의 수업을 방해하면서까지 팽과리를 치면서 민주화를 외쳐댄다. 우리 교수들도 민주화를 갈망하고 있기에 그리고 오늘의 우리 시대가 민주화를 위한 결단의 시대이기에 어디에 가나 민주화를 이야기한다. 더불어 살도록 태어난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주장된 어떤 정치이념에 비해서도 탁월한 이념적 구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우리 나라는 민주화를 반대하는 사람은 발붙일 자리를 찾을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것 같다.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화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해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다고 해서,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대중이 참가한다고 해서, 그리고 민주적 헌법이 국민의 합의에 의해 마련되고 헌법기관들이 일을 시작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민주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를 그 기본 행동원리로 삼는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그 주인이 되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배우고 인격이 변화되어야만 민주화는 이루어진다. 민주적 시민사회는 더불어 잘 사는 지혜가 몸에 밴 민주적 인격체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교육받은 시민 없이 민주사회는 실현되지 않는다. 「더불어 잘 사는 지혜가 몸에 밴 민주적 인격」으로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장하도록 작용하는 힘은 곧 교육이다. 민주화의 첩경은 모든 사람들을 민주적 인격으로 키워내는 교육을 잘하는 일이라고 우리 교육인들은 믿고 있다.

우리 사회를 민주적인 공동체로 만들고 그 안에서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교육받은 시민은 어떠한 인간 특성을 가져야 하는가를 알 필요가 있다. 그때야만 그 목표를 향한 교육구상이 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적 인격을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강조되어야 할 특성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에 대한 존경심이다. 인종이나 교육정도나 신분의 고하나 종교나 가치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가 단순히 인간이기에 그를 존중하는 마음이다. 흔히 인권존중이라고 한다. 이 마음은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민주적 인격을 위해 둘째로 강조되어야 할 인간특성은 철저한 공동체의식이다. 공동체의식이란 자기 자신을 그가 속한 사회집단(가족에서 출발하여 직장 지역사회국가 인류에도 확대되는 사회를 포괄)의 통합적 부분으로 인식함을 뜻한다. 앞서 신약성서에서 인용하였듯이 몸은 하나이고 나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을 그 몸에 통합된 지체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사람들을 남으로 여기기보다는 나와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의 지체로 대하는 것이다. 공동체어로 통합되는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상호작용적 관계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사회적 투시력을 갖게 되어야 가능해지는 것이 공동체의식이다.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다른 지체의 승리와 영광을 나의 것으로 인지하는 열린 마음, 그리고 공동체의 잘됨을 위해서 나의 이기적 욕망을 흔쾌히 내어버리는 큰 마음, 이것이 민주적 인격을 만드는 성숙된 공동체 의식이다.

셋째로, 민주적 인격과의 관련에서 자유와 책임을 빼놓을 수 없다. 시민사회를 지향한 인류의 긴 투쟁의 역사는 곧 인간의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자유는 인간이 타고난 굉장한 가능성의 최대한의 실현을 위한 기본조건이다. 자유를 가지기에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이다. 민주사회가 다른 어떠한 전제사회에 비해서도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그 사회 속에 모든 구성원들이 그들의 능력을 자유롭게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자유가 귀중하기에 시민사회에서는 모든 구성원에게 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는 자신에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에게 소중한 것임을 알고 존중하는 것이 민주적 인격의 특징이다. 남의 자유를 존중하기에 나와 다른 혹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까지도 존중하는 것이다. 모든 영역에서의 개인차는 존중되며 다양성 속에 공동체의 통일을 구하는 매우 단련된 민주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유행사에 있어서 그것이 공동체의 각 지체에 미칠 영향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자신의 자유행사를 조정할 수 있는 자기통제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다른 아님 자유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이다. 한 공동체 속에서 향유할 수 있는 자유의 폭은 구성원들의 책임 있는 자기통제능력과 정비례한다. 이와 같은 자유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시민들만이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로, 능력 있는 시민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은 문제해결을 위해 고도로 세련된 지적방법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수 엘리트에게 국정은 맡기고 대중은 시키는 일만 충성스럽게 하면 되던 시대와는 싸워서 결별했

기에 이제는 각자가 모두 책임지고 정치과정에 참가해야 한다. 자기 개인생활상의 크고 작은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국가나 세계의 당면한 복잡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문제상황의 이해와 분석과 해결방안 모색에 있어서 한 몫을 해야한다. 여기에는 자연과 인간과 사회에 관한 광범위한 지식과 함께 지적방법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 지식획득과 문제해결 훈련은 민주시민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교육의 과정이다.

다섯째로, 문제해결을 위한 지적방법과 연결되는 것으로서 공동체 내외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민주적 집단과정에 능숙해야 한다. 민주적 시민사회에서는 모든 구성원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 힘쓴다. 자유가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기에 여러 생활영역에서의 많은 차이와 갈등과 대립은 불가피한 것이 된다. 더욱이 사람마다 자기의 필요 충족을 위해 자유로이 활동하다보면 공동체 내에서 이해관계의 갈등과 대립이 있기 마련이다. 공동체의 문제를 최대 다수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집단사고를 통해 해결하고, 상반되는 이해관계나 대립을 토론과 설득과 타협과 조정활동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민주적 시민사회의 존속과 발전의 필수 요건이다. 이와 같이 집단사고와 설득과 타협의 조정능력은 그것이 단순히 지적인 능력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사회성 및 도덕성의 성숙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여섯째로, 준법정신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시민사회는 법에 의해 다스려진다. 법은 곧 약속이고 계약이다. 이 약속이 권위를 가질 때 개인들의 자유가 보호되고 다양성 속에서도 질서가 유지된다. 모든 시민이 계약의 당사자이기에 법의 제정은 모두의 참여에 의하고 모두의 합의를 중요시한다. 법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법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잘못된 법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고쳐야 하고 수정되기 전에는 악법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교육받은 시민이 갖추어야할 자질은 얼마든지 더 많이 열거될 수 있겠지만 우선 매우 기본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여섯 가지만을 내세워 보았다. 이 여섯 가지 인간 특성만을 놓고도 우리는 오늘의 우리 교육력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목표들임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을 이루는 격변하는 시대를 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당면 문제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일만도 12년이나 16년의 학교교육으로는 부족을 느끼게 되었다. 혹 지식획득이야 많은 시간을 투입하면 가능할런지는 몰라도 인간에 대한 존경과 애정, 공동체의 잘됨

을 위해 이기적 욕망을 버리는 도덕적 능력, 책임 있는 자유행사능력, 갈등과 대립의 평화적 해소능력 등은 지금까지 해 온 학교교육이나 준 학교 교육화한 사회교육프로그램으로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수준의 교육목표들이다. 현재와 같은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의 효능에서 본다면 민주적 인격 배양과 관련된 교육목표들은 오히려 학교와 사회교육프로그램 밖의 문화세력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행동특성들로 보인다. 부모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고 자라나는 애정, 부모의 가치지향, 가정 내의 양육방식 및 인간관계, 학교내의 가치지향과 문화풍토 또래집단이나 기타 여러 소속집단의 풍토, 종교신앙의 성격, 대중매체의 가치지향, 정부주도의 혹은 자발적 사회운동, 정치 및 행정과정, 경제구조 그리고 사회 일반적 강화 혹은 보상체제 등이 인간의 인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으로서의 문화세력들이다. 그리고 이 세력은 무수히 있고 우리의 삶의 주변을 꼭 메우고 있다. 우리가 진정 민주적 인격을 교육해내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의 종전의 교육개념을 수정해야 한다. 그 수정의 방향은 분명해졌다. 지금까지 교육의 이름으로 성취하던 것보다는 훨씬 높고 깊은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의 실체를 창조해 내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까지 의도적인 교육에 포함되지 못했던 문화세력들을 의도적인 교육프로그램화하는 일이다. 이것은 곧 삶의 모든 장을 교육의 장(場)화하는 것을 뜻하며,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교육의 기간으로 삼는 이른바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교육을 생각하고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

4. 사회교육의 확충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인격들을 교육해 내기 위해서는 종전의 교육개념이나 실천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앞에서 말했다. 종전의 교육으로는 민주시민적 인격을 키우기 위한 교육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주장이다. 오늘의 격변하는 사회 속에서 민주사회의 책임 있는 주인노릇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의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는 일만으로도 학교는 너무 바쁘게 되었다. 거기에 더하여 인간존중 이웃사랑 공동체의식 등 앞서 예시한 민주적 인격특성까지도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학교는 그 체질을 개혁해서라도 그 일부의 책임은 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교는 지금까지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덮어두었던 학교풍토, 학교경영방식, 교내

인간관계, 교원들의 사상적 지향과 교육자로서의 성실성과 전문성, 교수방법, 교육평가내용과 방법, 교칙, 학생활동, 상벌규정 등 모든 요소를 민주적 인격배양에 공헌하는 세력이 되도록 연구하고 재정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학교는 그 교육과정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재구성해야 하고 학교에서 교육된 것이 학교 밖의 생활에서 강화되고 보완되게 하기 위해서 학교 밖의 문화세력을 학교의 교육방향과 일치시키는 일에서 가정과 지역사회 여러 기관 및 지도자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가야 한다.

이와 같은 학교교육의 재편과 발맞추어 사회교육도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확충시키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그것은 곧 평생교육체제의 통합적 부분으로서의 학교와 교육 전부를 종합하고 체계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 적용하는 일이다. 이를 조 더 부연해서 설명해보자.

사회교육의 길이를 늘리고자 했다. 지금까지의 사회교육 프로그램들을 보면 대부분이 토막토막 끊어지는 일회적이고 정시적인 것들이다. 강습회, 주부교실, 교양강좌, 기술훈련, 각종 계속교육 프로그램까지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끝이 나는 것이 많고, 길어야 1~2년 과정을 넘지는 않는다. 여기서 사회교육의 길이를 더하자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는 일회적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들을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계속 학습과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체계화 계열화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평생을 사는 동안 반복 심화해갈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창안 정착시키자는 것이다. 인간존중, 협동심, 공동체를 위한 자기희생 등은 평생을 두고 읽고, 듣고, 실천하고, 자기비판하고, 다시 결단하는 계속적인 자기도야의 과정을 거쳐서야 키워진다. 성숙한(시민적 자질)속에 포함되는 많은 행동특성들이 이와 같은 평생에 걸친 일관된 학습경험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올바른 가정생활운동, 예의와 질서 지키기, 환경정화, 좋은 것을 이웃에 나누어주기, 근검절약운동, 소비자보호운동, 저임금해소캠페인, 퇴폐풍조추방운동, 도덕재무장운동 등 수없이 많이 창출될 수 있는 사회운동형태의 경험중심교육프로그램들이 치밀한 계획과 조정 속에 추진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사회운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문화요소로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하겠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회, 교육요원을 필요로 한다.

사회교육의 넓이를 더해야 하겠다고 했다. 교육목표의 폭과, 교육내용의 범위와, 교육형태 및 방법의 다양성을 더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사회교육의 이름으로 나온 프로그램들의 지배적인 교육목표는 초기의 문맹퇴치에서

시작하여, 개량된 농사법 익히기, 위생관리, 직업기술 습득, 직업적 성장, 보다 향상된 자녀교육 등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런 목표들에 비하면 세계정세나 경제추세의 이해, 사회가 당면한 문제 및 이슈에 대한 이해와 판단능력, 민주주의 이념과 그 구현전략에 대한 통찰과 자세, 도덕적 성숙 등 성숙한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 습득의 목표들은 거의 내버려진 상태에 있었다. 이제 사회교육의 목표와 내용의 범위는 확충되어야 한다. 정치교육과 도덕교육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사회교육의 차원에서 정치교육이 약간 실시되었다면 그것이 다분히 일방적 주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기에 앞으로의 정치적 사회화를 위한 사회교육에서는 철두철미 시민 각자의 자주적 판단을 돕는 방향에서의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정보내용을 교육의 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육목표의 폭이 넓어지는 것만큼 교육내용은 따라서 폭이 넓어지게 마련이다. 지금까지 소홀히 다루어져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덕, 종교의 제 분야가 폭 넓게 다루어져야 하고, 지금까지 이슈의 한쪽 입장에만 치우쳤던 내용자료를 이슈의 전체를 정확히 볼 수 있게 하는 포괄된 자료로 보충될 것이 요구된다. 공동체의 잘사는 삶을 위해 잠시도 소홀히 하지 않는 마음으로 꾸준히 읽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생활이 교육받은 시민의 참모습이기에 그의 가장 올바른 판단에 도움되는 광범위하고 신빙성 있는 정보가 언제나 손 가까이 있게 해주어야 한다.

사회교육의 형태나 방법에 있어서도 준 학교교육의 방법에만 매달리지 말고 사랑방 모임 같은 각종 이슈에 대한 자유롭고 자발적인 토론모임을 위시해서, 국도순례나 세계 여행 같은 행사, 양서(좋은 책)읽기 모임, 각종 생활개선캠페인, 상담활동 등 우리들의 사회교육목표 달성에 효능적이라고 판단되는 모든 형태와 방법들이 창안 활용되어야 한다. 사회전체의 삶의 모습이 배우면서 진실되어 사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한다.

끝으로 사회교육의 깊이를 더해야 한다고 했다. 좀 더 심각해지고 진실해져야 하겠다는 말이다. 사회교육은 한가한 사람들의 보람있는 시간 보내기 이상의 절실하고 엄숙한 문제현실에서 시작된 일이다. 그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그 도를 더해간다고 보아야 한다. 지금 이 지구 뒤에는 큰 나라 작은 나라, 잘사는 나라 못사는 나라, 힘센 나라 힘이 약한 나라 할 것 없이 온통 아파서 요동하고 있다. 가난의 병을 앓는 신음 포화 속에 죽어 가는 사람들의 살려달라는 외침, 전쟁의 소문에 안정을 잃은 사람들의 떨음, 일부 사람들의 불의와 부정 때

문에 못살게 된 사람들의 한에 맺힌 절규, 자기의 깊은 죄의식을 보상이나 하려는 듯이 혼자 외롭다고 나선 위선적 인격들의 돌팔매질 소리, 인기에 영합한 정책의 비 진실성 때문에 생겨지는 파국적 결과들, 지금은 선진국임을 자랑하지만 언제 그 근거가 무너질 지 모를 허약한 그리고 진실 되지 못한 기초 위에서 있는 나라들의 신경증 적 형태 등등 지금 온 세계는 편치 않다. 그 속에서 우리 나라라고 털 아픈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전 인류적인 질환은 지구촌에 사는 모든 개인들이 온전하지 못함에서 온 것이다. 진리 안에서 사랑과 외로움으로 살도록 창조된 인간의 원형에서 타락한 인류가 앓는 병인 것이다. 모든 개인들이 인격의 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이 개개인들의 인격적 질환을 근원적으로 치유함이 없이 삶의 죄상적 조건만을 이리 뜯고 저리 고쳐서 될 일이 아니다. 궁극적인 해결은 아마도 종교에서 찾아야 할 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인간변화의 큰 몫을 해야한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교육은 심각한 사업이다. 앞에서 제시한 교육받은 시민이 갖추어야 할 인격 특성들이 모든 시민에게 키워져야 우리는 잘살 수 있게 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의 평안한 생존의 보장은 없다. 우리는 사회교육의 측면에서 인간의 원형 회복을 위해 우리의 교육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임할 때 노는 기분이 되지 않는다. 매우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우리들의 진실된 수고를 바치고자 하는 것이다.